

2018년 12월 20일

#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 미 증시, FOMC 이후 변동성 확대 후 하락 파월 연준의장 “올해 글로벌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지적

### FOMC 결과

미 증시는 FOMC 를 앞둔 가운데 미 행정부 섣다운 이슈 완화 및 이탈리아 예산안 관련 우려 해소에 힘입어 상승 출발. 그러나 연준이 FOMC 를 통해 금리를 인상한 이후 하락 전환하는 등 변동성 확대. 특히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금융시장 변동성과 글로벌 성장 둔화에 대해 지적하자 하락폭 확대(다우 -1.49%, 나스닥 -2.17%, S&P500 -1.54%, 러셀 2000 -2.03%)

시장 참여자들은 12 월 FOMC 가 파월 의장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였다고 평가. 금융시장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및 연준의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으로 부담을 보여왔기 때문. 이런 가운데 연준은 FOMC 에서 금리를 25bp 인상. GDP 성장률은 2018 년(3.1%→3.0%), 2019 년 (2.5%→2.3%)은 하향 조정. 핵심 물가지수는 0.1%씩 모두 하향 조정. 한편, 금리 전망은 2019 년 이후 25bp 하향 조정해 2019 년 금리인상 횟수를 3 번에서 2 번으로 하향. 한편, 성명서에서 ‘점진적인 금리인상’ 앞에 ‘some’이란 문구를 넣었으며, 글로벌 경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라는 문구 또한 추가 되었음. 또한 이제는 금리인상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기 보다는 경제지표에 더욱 집중하면서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임.

FOMC 이후 금융시장 참여자들은 비둘기파적인 성명서 보다는 ‘경기 둔화’에 초점을 맞춘 모습. 특히 성장률 하향 조정과 파월 연준의장이 “금융시장 변동성과 성장 둔화가 경제에 새로운 도전 과제” 라고 지적한 이후 주가지수는 급격하게 매물이 출회되는 경향을 보임. 더불어 “올해 글로벌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라고 주장하고, “내년에는 경제가 우리전망보다 좋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한 점이 지수 하락을 촉발. 한편, 달러화는 약세폭이 축소되었으며, 엔화도 강세폭을 확대한 반면, 호주달러를 비롯한 신흥국 환율은 약세폭이 확대. 더불어 미국 국채금리는 하락폭을 확대하는 등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 나타남.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등락률(%)	Close	D-1	지수	등락률(%)	Close	D-1
KOSPI		2,078.84	+0.81	홍콩항셱		25,865.39	+0.20
KOSDAQ		672.08	+1.88	영국		6,765.94	+0.96
DOW		23,323.66	-1.49	독일		10,766.21	+0.24
NASDAQ		6,636.83	-2.17	프랑스		4,777.45	+0.49
S&P 500		2,506.95	-1.54	스페인		8,769.10	+0.78
상하이종합		2,549.56	-1.05	그리스		618.98	-1.01
일본		20,987.92	-0.60	이탈리아		18,941.90	+1.59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 대부분의 업종 하락 전환

엑손모빌(-1.69%), 코노코필립스(-1.02%) 등 에너지 업종은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상승하기도 했으나 장 후반 매물 출회되며 하락 했다. JP모건(-1.27%), BOA(-1.19%), 웰스파고(-1.85%) 등 금융주는 연준의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경기둔화 이슈에 반응을 하며 하락 전환 했다. 캐터필라(-1.56%)은 2019년에 인프라투자가 많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자 상승하기도 했으나 경기 둔화 이슈 부각되며 하락 전환 했다. GE(+5.36%)는 GE 헬스케어 IPO에 대한 기대감과 투자의견 상향에 힘입어 상승 했다.

마이크론(-7.92%)은 가이던스 및 Capex 축소 발표 여파로 하락 했다. 인텔(-4.55%), TI(-4.24%)를 비롯해 AMAT(-5.26%), 아나로그디바이스(-4.95%) 등도 동반 하락 했다. 페덱스(-12.16%)도 가이던스 축소 발표로 급락 했다. 페이스북(-7.25%)은 정치 분석 회사인 캠프리짓 애널리티카와 관련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여파로 하락 했다. 더불어 EU의 규제 우려도 부담이 되었다. 앨리칸(-6.95%)은 유럽에서 가슴 보형물 판매 중지 소식여파로 급락했다. 필립모리스(-2.69%)는 전자담배 경쟁이 치열해졌다며 투자의견 하향 조정 여파로 오늘도 하락 했다.

####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1.53%	대형 가치주 ETF	-1.24%
에너지섹터 ETF	-2.89%	중형 가치주 ETF	-1.44%
소매업체 ETF	-1.41%	소형 가치주 ETF	-2.06%
금융섹터 ETF	-1.25%	배당주 ETF	-1.03%
기술섹터 ETF	-1.98%	변동성 ETF	-0.47%
소셜 미디어업체 ETF	-1.44%	대형 성장주 ETF	-1.91%
인터넷업체 ETF	-2.10%	중형 성장주 ETF	-1.72%
리츠업체 ETF	-0.92%	소형 성장주 ETF	-2.05%
주택건설업체 ETF	-1.30%	신흥국 고배당 ETF	-1.09%
바이오섹터 ETF	-2.14%	신흥국 저변동성 ETF	-0.56%
헬스케어 ETF	-1.31%	하이일드 ETF	-0.90%
곡물 ETF	-0.26%	물가연동채 ETF	+0.17%
반도체 ETF	-4.34%	Long/short ETF	+0.31%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31.50	-1.25%	-7.28%	-12.75%
소재	311.57	-1.29%	-4.49%	-8.45%
산업재	544.06	-1.91%	-4.68%	-8.45%
경기소비재	775.35	-2.23%	-6.31%	-4.91%
필수소비재	530.92	-1.05%	-5.62%	-7.33%
헬스케어	984.34	-1.27%	-7.28%	-6.25%
금융	390.00	-1.24%	-4.24%	-12.06%
IT	1,092.27	-1.94%	-5.50%	-4.90%
커뮤니케이션	140.11	-1.71%	-4.15%	-2.80%
유틸리티	274.55	-0.22%	-3.50%	-1.42%
부동산	198.05	-0.92%	-3.31%	-4.35%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한국 주식시장 전망

### 조정 예상

MSCI 한국 지수는 1.15% MSCI 신흥 지수도 1.66% 하락 했다. 야간선물은 FOMC 이후 외국인의 선물 매도(-1,941 계약) 규모가 확대되며 2.55pt 하락한 261.90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27.50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4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는 파월 연준의장이 '글로벌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라고 지적한 여파로 하락했다. 특히 연준이 2019 년 금리 인상 횟수를 3 번에서 2 번으로 낮췄으나,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 하며 경기 둔화 이슈가 부각된 점이 부담이었다. 이는 한국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미-중 무역분쟁과 미국 국채금리 변화 등이 '경기 둔화' 이슈를 불러왔으며, 이는 위험자산 선호심리를 위축시켰었다. 이런 가운데 파월 연준의장이 '글로벌 성장 둔화'를 지적한 점은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 더욱 확대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파월 의장도 언급 했듯 여전히 미국 경기는 완만하게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중국 또한 인프라투자를 본격화 하고 있어 경기 둔화 우려감이 제한된다. 특히 중국의 OECD 경기 선행지수가 3 개월 연속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중국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완화 시킨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 하락 출발 이후 낙폭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한다.

## 주요 경제지표 결과

### 주택 지표 개선

11 월 미국 기존 주택판매는 전월(522 만건) 보다 증가한 532 만 건으로 발표 되었다. 이는 전월 대비 1.9% 증가한 수치이나 전년 대비로는 7.0% 감소한 수치다.

## 상품 및 FX 시장 동향

### 국제유가 재고 감소에 힘입어 급등

국제유가는 EIA 가 지난주 원유 재고가 시장 예상과 달리 50 만 배럴 감소 했다고 발표한 데 힘입어 급등 했다. 더불어 정재유도 420 만 배럴 감소 했고, 가솔린은 180 만 배럴 증가에 그쳐 수요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다. 특히 정재유는 30 만 배럴 증가할 것으로 전망 했으나, 큰 폭으로 감소 했다는 점이 투자심리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 한편, 정유설비 가동률도 지난주의 95.1%보다 증가한 95.4%로 발표된 점도 수요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달러화는 비둘기파적인 FOMC 결과 및 유로화 강세 영향으로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 연준은 금리를 인상 했으나, 2019 년 금리인상 횟수를 3 번에서 2 번으로 하향 조정 하는 등 비둘기파적인 내용을 발표 했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져 달러화는 약세폭이 축소되었으며, 엔화도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한편, 유로화는 EU 와 이탈리아 정부가 2019 년 이탈리아 예산안을 두고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반면, 신흥국 환율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며 달러 대비 약세폭이 커졌다.

국채금리는 연준이 금리를 인상 했으나, 2019 년 금리 전망을 하향 조정한 여파로 하락 했다. 더불어 파월 의장이 ‘글로벌 성장 둔화’를 지적한 이후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져 하락폭이 좀더 확대되었다.

금은 달러 약세에 힘입어 상승 했다. 구리를 비롯한 비철금속도 달러 약세에 힘입어 상승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31%, 철근도 0.50% 상승 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48.17	+3.37	-6.21	Dollar Index	97.084	-0.02	+0.04
브렌트유	57.24	+1.74	-4.84	EUR/USD	1.1369	+0.07	0.00
금	1,256.40	+0.22	+0.51	USD/JPY	112.62	+0.09	-0.59
은	14.818	+0.80	-0.22	GBP/USD	1.2611	-0.22	-0.14
알루미늄	1,908.00	-0.96	-1.45	USD/CHF	0.9954	+0.31	+0.19
전기동	6,065.00	+1.83	-1.38	AUD/USD	0.7101	-1.11	-1.65
아연	2,546.00	+1.29	-0.78	USD/CAD	1.3497	+0.23	+1.10
옥수수	381.75	-0.97	-0.91	USD/BRL	3.8962	-0.33	+1.10
밀	522.50	-1.92	-0.76	USD/CNH	6.9061	+0.19	+0.48
대두	913.00	-0.84	-2.17	USD/KRW	1123.50	-0.54	-0.44
커피	100.85	+1.46	-2.13	USD/KRW NDF1M	1127.60	+0.20	+0.43

10 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 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2.758	-5.91	-15.12	스페인	1.375	0.00	-5.10
한국	1.923	-4.70	-8.40	포르투갈	1.643	+1.30	-7.50
일본	0.035	+0.90	-2.00	그리스	4.274	-8.80	+2.40
독일	0.239	-0.50	-4.00	이탈리아	2.769	-16.60	-22.90